

여호와와의 영광이 온 세상이 가득하리라

뉴스레터 News Letter 287호 주후 2024년 10월 16일(수)

The Glory of the LORD Shall Fill the Whole Earth

기도대첩, 거룩한 청정국을 기도로 사수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성도가 순명하여 거룩한 기도의 터가 될 때
하늘의 총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기도의 특명전권대사로 삼으셔서
영적 전쟁의 기도대첩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글로벌 특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Holy Forever)을 높여 외칠 때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성령의 불로 모든 영과 육의 문제가 해결 될 것이고,
한국교회 140여년 역사상 최초의 하나 됨으로 응답하실 것이며,
동성애를 비롯한 악법들의 제정을 막아낸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주후 2024년 10월 15일(화) 후집회 중 오정현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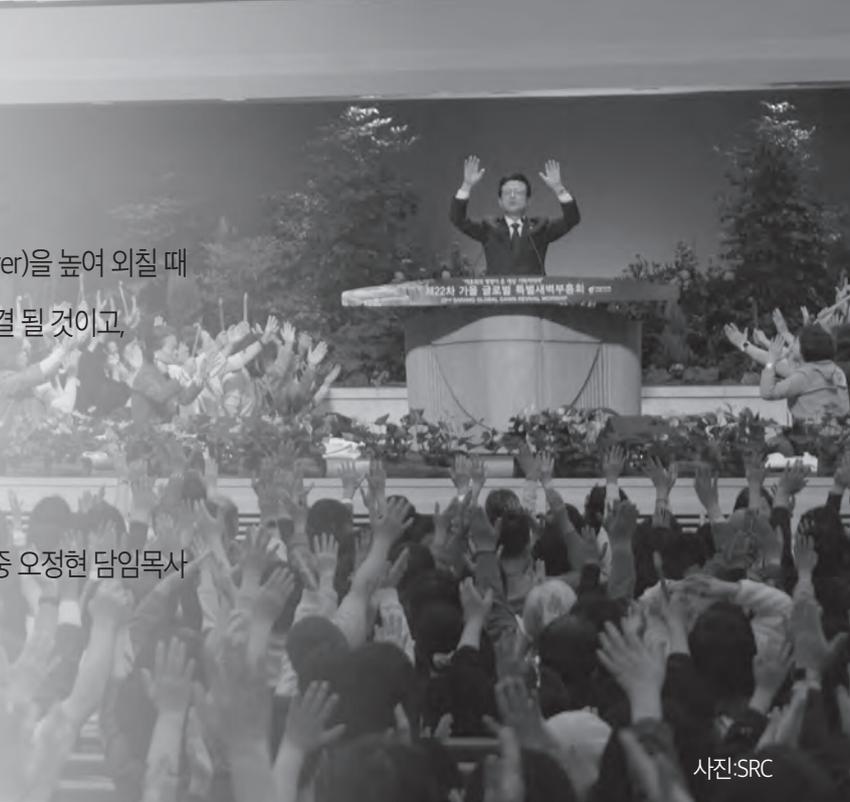


사진:SRC

TODAY'S PRAYER

앞드림으로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받아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영적강국으로 재건되게 하옵소서.

- 1 주여! 특새에 나온 영가족들이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눈물로 간절히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이 땅으로 보냄 받은 하나님의 특명전권대사로서 세계선교를 위해 순명하게 하옵소서.
- 2 세우신 강사님(크리스찬 소니아 목사, 하형록 목사)과 오정현 담임목사님께 거룩한 성령의 기름부음을 주셔서, 불가능을 부흥으로 역전 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 3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가 강력한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세 총천하여 기도할 때,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거룩한 청정국으로 재건되게 하옵소서.

특새 강단 아카이브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사 64:1-2)

에드워즈 스태처 목사(Biola 대학교 Talbot 신학교 학장)

우리는 대위임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신앙에서 굳게 서는 것,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다음세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과거 평양 대부흥, 웨일즈 부흥에서 기도가 핵심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대위임명령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여,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부흥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이여 살아나게 하소서

(겔 37:7-10)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흥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대언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부흥을 열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평양 대부흥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죽어가는 가정과 민족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특새 은혜게시판에 가득한 응답의 역사들

“강단초대의 은혜” _ 유수연

강단초대는 특새의 숨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자리입니다. 함께 강단에서 기도하고 holy forever 찬양하던 젊은 날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을 평생 기억하며 주님 언제 오시던 이렇게 깨어 있게 하소서!

“사명이 순명되어” _ 박현주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믿음의 모험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그리고 내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명으로 반응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에 동참케 하십니다.

“등을 흔드는 자들이 아닌” _ 이영균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크게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은혜 집회를 준비해서 영가족된 지방의 작은 교회도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사랑의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런 아침선물” _ 박두옥

할렐루야 첫날 특새 기대를 안고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어느 젊은 남자집사님이 젤리랑 사탕을 담은 정성스레 포장된 간식봉지를 한사락씩 탈 때마다 일어나서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미남집사님~~ 교회로 특새버스가 달려간다~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옵니다!” _ 김지혜

믿음의 세대 계승은 특새부터!
하루의 시작은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달리는 믿음의 현장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한 특새” _ 오현중

은혜가 흘러넘치는 특새는 나와 우리 가정, 일터와 교회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온전히 덮고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되는 잔치의 날입니다.

특새 은혜게시판에 축적된 은혜의 기록들



신발도 교회 방향으로



온라인으로 특새에 참여하는 '한국교회'



아빠 품에 안겨 주님 품으로 옵니다



특새 이후 성도의 교제



손과 발로 특새 출석 인증!



특새는 신앙계승의 현장



대가족도 특새에 참여합니다



환경의 제약도 특새의 은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계선교 응답의역사들

복음의 서진

루마니아 호프교회

2011년 2월
사랑의교회 · 유니온 신학교
글로벌 파트너십 조인식



2018년 11월 10일
복음의 서진 10주년 헌신예배



2019년 6월 1일
헌당예배 시 유럽 101개 교회
명단 돌판 전달



2023년 10월 14일
토비새에서 '복음의 서진' 사역 통하여
개척된 201개 교회 명단 돌판 전달




**2008년 공산당 건물을 임대하여
루마니아 호프교회 건축**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



새로운 예배 처소 건축을 위한 기도회



**현재 완공된 새 성전
(구글맵 전경)**

창립 30주년에 '복음의 서진'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영국 웨일스 신학교와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쇠퇴해가는 유럽 교회를 제자훈련의 정신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음. 이후 UNION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유럽 전역에 1000개 교회 개척'이라는 비전을 품고, 유럽 전역에 25개의 Learning Community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헌신함.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는 15년 전 루마니아에서 공산당 건물로 사용되던 건물을 임대하여 루마니아 호프교회를 개척, 공산주의가 아직도 만연한 루마니아에서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리더들을 배출하는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로 성장함. 사랑의교회의 섬김을 통해 새로운 예배 처소를 완공해 루마니아에서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함.

세계선교 은혜의역사들



박필훈 선교사(오엠십스 미주대표)

2003년 첫 특새 온 가족이 함께 새벽공기를 가르며 달렸던 은혜와 감격으로 선교지의 삶과 사역을 살아내고 있는 저희에게 2024년도 제22차 가을 글로벌 특새는 또 다른 은혜와 감격의 새로운 챕터, 새로운 시즌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새로 쌓여진 다함 없는 은혜가 '10.21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로 흐르고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수원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 부흥의 열매로, 열방을 향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차형탁 선교사(R국/손니치 센터)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인 선교지에서의 특새는 **갈급한 영혼의 생명이요, 전투식량**입니다. 위로부터 부여주시는 은혜의 향연은 영혼의 세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이 마다 다시 곱씹으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그만큼 고대함을 넘어 버리는 심정으로 이번 22차 가을 글로벌 특새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밀병기인 가을 특새를 통하여 **모든 영가족들이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고,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서는 만왕의 왕께서 이미 이긴 승리의 전주곡이 되길 R국에서도 함께 응원하며, 간구드립니다.

<부흥의 진원지,
기도를 쌓는 특새의 현장>



이진호, 장호빈 선교사(에과도르)

주중에 안식일을 마치고 선교지로 귀국하여 특새의 보너스인 동판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개인, 교회, 나라를 향한 비전의 보너스를 받아갑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모든 분들에게 특새가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의 시발점이 되고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가 엘리야의 작은 구름조각이 되어 한국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한정훈 선교사(체코, Seed 국제선교회 총무)

체코 프라하 주일 밤에 맞이하는 가을 글로벌 특새! 은혜와 감격은 그 자체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충만한 오정현 목사님과 강사님들을 통해 쏟아져 부여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성도들의 강력한 믿음의 기도**는 영적 미사일과도 같습니다. 이 영적 기세를 몰아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한국교회의 회복과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Spiritual Movement**가 될 줄 믿습니다.

